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니라.

2021년 10월 24일 설교
마태복음 20장 1-16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16 절 말씀입니다.
우르두어로 읽는 동안 모국어로 읽으십시오.

- 1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
- 2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의논하고 포도원으로 보내니라
- 3 제 삼시쯤 나가시니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게으르게 서 있는 것을 보시고
- 4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옳은 것을 주리라
- 5 그래서 그들은 갔다. 제육시와 제구시쯤에 다시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 6 그리고 제 십일시쯤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왜 여기에서 하루 종일 게으르게 서 있습니까?’
- 7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 8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그의 감독자에게 이르되 일꾼들을 불러 나중 된 자부터 시작하는 자까지 샅을 갠아라
- 9 제 십일시쯤에 품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 10 먼저 품꾼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생각하되 한 데나리온씩씩이나 받았더라
- 11 그들이 그것을 받고 집주인을 원망하며
- 12 가로되 나중 된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주께서 그 날의 수고와 뜨거운 더위를 견디어 낸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 13 그러나 그는 그들 중 하나에게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내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느냐?’
- 14 네게 속한 것을 가지고 가라.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처럼 나는 이 마지막 일꾼에게 주기로 선택합니다.
- 15 내 소유로 내가 선택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관대함을 멸시합니까?’
- 16 그러므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고마워, 소하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 백성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한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하기 전, 중국에서 살기 전에 친구와 함께 뉴욕에 갔습니다.
우리는 차이나타운의 작은 장소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와 매우 가까운 노스다코타 주에서 자랐습니다.
노스다코타에는 매운 음식이 없었습니다.

식료품점에는 순한 살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다.
아니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내 친구가 ” 매트, 이 작은 고추를 먹어보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그 고추를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음 시간 동안 비참했다.
땀이 나고 입이 딱 벌어졌다.
남은 점심을 끝내는 데에는 큰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내 작은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중국 음식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중국 음식에서 일부 붉은 고추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튀겨서 함께 제공됩니다.
풍미가 가득한 커다란 멋진 접시입니다(사진 참조).
그것을 먹으려면 젓가락으로 다른 음식을 고르고 고추는 그대로 두십시오.
고추는 다른 모든 것에 풍미를 더하지만 그 자체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음식은 먹기 전에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중 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읽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성경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비유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유를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가 참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1-23 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천국의 비밀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마음이 닫힙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 장 14-15 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이 ”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 보기는 하지만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둘째, 비유에는 거의 항상 하나의 요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 장 1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니라.”

이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비유는 이 세상의 것을 이 땅의 것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참된 원칙을 주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자에게 로마 동전으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비유는 이른 아침, 제 3 시, 6 시, 9 시, 11 시를 언급합니다.

몇시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시계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은 해가 떠오를 때였다.

세 번째 시간은 대략 오전 9 시였습니다.

6 시는 정오쯤이었다.

9 시 오후 3 시경.

11 시 오후 5 시경.

명확성을 위해 나는 고대가 아니라 현대를 언급할 것이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비유 주변의 구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구절이 주변의 구절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마태복음 19 장에서 예수님은 같은 주제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 장에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될 사람을 놓고 싸웁니다.

그들은 나중의 사람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등을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자.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사진입니다.

(그림 참조.)

우리의 이야기는 ” 천국은 이와 같다.

한 집 주인에게는 포도원을 위해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갔다.

한 데나리온으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이었다.

여기서 잠시 멈추자.

일 자리를 찾기 위해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일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공중에 붓을 들고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갖는 감정 중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그들은 좋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다른 많은 이유로도 발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쁜 일을 할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덮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둘 다의 일부입니다.

이 수치심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세 시간 뒤인 늦은 아침, 주인은 장터에 갔다.

다른 노동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너는 내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네게 옳은 것을 주리라

일꾼들은 주인의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다.
주인은 정오에 갔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은 오후에 나가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주인은 다시 장터에 갔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일거리가 없었다.

다시 일시 중지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이 없어서 슬펐다면 다른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늦은 오후에 주인은 일꾼들에게 ” 왜 하루 종일 여기에 서 있느냐” 고 물었다.
그들은 ”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다
저녁이 되자 주인이 작업장에게 말하였다.
먼저 늦게 온 사람에게 돈을 주고 더 오래 일한 사람에게 돈을 줘라.”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일을 주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목적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혼자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또한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이 일꾼들을 직접 축복하십니다.

늦은 오후에 출근한 근로자가 먼저 급여를 받았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노동자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각자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들은 샅을 받은 후 집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늦게 온 노동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돈을 지불했습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일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월급 받고 가세요.
나는 마지막 노동자들에게 당신과 같은 급여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소유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내가 관대해서 화난거야?”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므로 한 가지 핵심 요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16에서는 ”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나타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감동을 건너 뛴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이 구절에 대해 읽은 책 중 어느 것도 그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모두 나약함과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이 없으며 모두 시장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고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신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치심은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노동자에 대해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그룹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회 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저렴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더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인들은 자동차가 고장날 때까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웃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새 차를 산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나는 가끔 내 오래된 차를 자랑한다.

나는 내가 새 차를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할 때, 나는 종종 그것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느낌을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일꾼은 그들 중 일부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 보면 오전 9시경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를 받을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실업의 수치가 사라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일하는 직원들은 지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가서 그가 선하시며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인은 신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신은 강력하다. 그는 이야기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와 그의 뜻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관대하십니다. 관대함은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며, 특히 하나님과 같이 강력하신 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고 친절하시며 관대하시다는 이 생각은 십자가에서 가장 잘 표현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상징임을 주목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관대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 된 것이 먼저라는 궁극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낮고 나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고 그분은 높임을 받으셨고 첫째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수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극도의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것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수치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27:46 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는 왜 그 부끄러움을 참았을까?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과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 그 수치를 참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필요 이상으로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에 수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예롭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죄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영예를 가져오십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그분의 조건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 당신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잘해줄게 ”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일꾼들이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한 모든 일 때문에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친절하고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함을 받아들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 겸손, 의존이라는 세 단어를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급진적인 생각입니다.
이 나라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영리하거나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영어 단어는 “entitlement”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끔찍한 삶의 방식을 깨뜨립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매일 적어도 10 가지 일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권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들 중 일부를 서로에게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 말해주세요.

겸손을 강점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겸손하는 것은 현대 미국에서 어리석고 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그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피부가 검거나, 갈색이거나, 흰색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 때; 또는
당신이 그들보다 적은 돈을 벌기 때문에; 또는 같은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참으로 보기 드문 힘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우정, 가족 또는 팀에 선물입니다.

이번 주에 가족과 직장과 친구들을 겸손하게 축복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그들을 미워할 핑계를 줄 때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당신과 나는 감사를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겸손에 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고 친절하시고 관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면 이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직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이 설교의 끝으로 이끕니다.

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친절하시고 관대하십니다.

당신이 그의 왕국의 일부라면 그의 조건에 따라 그의 관대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하고 겸손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가 기쁨과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힘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